

한·미 FTA 추진 현황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추진 현황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은 특정 국가간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해서 맺는 국제적인 약속으로서 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약속한다. FTA는 협정을 맺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적인 성격을 띤다. 가령 우리나라가 A라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관세철폐를 약속하면 현행 20%의 닭고기를 A국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20%로 수입한다.

반면 1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에서 진행되는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의 결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

2006년 3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개의 FTA를 체결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3개의 FTA에서 닭고기는 개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큰 영향을 입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칠레 FTA에서 냉장 닭고기의 경우 10년간 관세를 철폐하되 냉동 닭고기는 2,000톤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권 오 복 FTA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용하고 나머지는 DDA 농업협상이 타결된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 EFTA와의 FTA에서는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FTA 대상국은 아세안, 캐나다, 인도가 대표적이고 금년 5월부터 미국과도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미

국과의 FTA는 2004년부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2004년 5월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가 수차례에 걸쳐 FTA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후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전실무예비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전실무예비점검회의에서는 한·미 FTA 추진에 앞서 양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와 예상 쟁점 등에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가스 배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13일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내렸고 2006년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2006년 1월 21일 미국과 현안이 되어 온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여 미국과의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애물이 모두 해결된 셈이었다.

2006년 2월 2일에는 외교통상부 주최로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농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중단되었다. 같은 날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2월 3일 한국과 미국 양측은 FTA 추진을 선언했다.

개시 선언에서 밝혀진 FTA 추진일정을 보면 본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의 한·미 양측간 예비협상이 진행되고 5월부터 협상이 개시되어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90일간의 미 의회 검토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협상이 종료되고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치면 2008년부터 발효될 것이다.

2. 한·미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협상 개시 선언부터 미국은 '예외 없는 포괄적 수준의 시장개방'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우리 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의 농업 대국 미국에 비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산물

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곧바로 국내 농업의 피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 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방의 폭이 넓을수록, 개방의 속도가 빠를수록 국내 농업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한·미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① 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단, 곡물과 유지작물 등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를 가정했다.

② 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③ 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했다. 쌀은 WTO와의 재협상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결과, 한·미 FTA로 농업부문에서는 1조 1,552억원에서 2조2,830억원 정도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품목군별로는 축산물(3,380억원~9,031억원), 채소·과일(1,200억원~2,554억원), 기타작물(1,792억원~1,963억원), 낙농제품(142억원~1,110억원) 순으로 생

산 감소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율 면에서는 유지작물(49.6%), 곡물(18.6%), 축산물(14.5%) 순이다.

한·미 FTA시 생산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은 현행 관세가 40%인 쇠고기이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쇠고기 수입가격이 29% 정도 저렴해져 일부는 기존에 호주나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던 것이 미국으로 수입이 전환될 것이고 일부는 국내 중등육의 소비대체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프라임급 냉장육이 수입될 경우 일본의 화우처럼 국내 고급육 시장도 상당정도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제품은 현재 관세가 36%인 혼합분유 형태로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된다. 그러나 현재 관세가 176%인 탈지 및 전지분유 관세가 혼합분유 관세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이들 낙농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분유 시장에 영향을 주어서 현재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낙농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2005년(1~11월)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닭고기 가격 강세로 전년 동기보다 94% 증가한 54,000톤이었다. 수입선별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덴마크산 35%, 미국산 34%, 태국산 8% 등이다. 2004년 대비 특징적인 것은 덴마크와 태국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대신 미국 닭고기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량은 2004년 4,000톤에서 2005년 19,000톤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닭고기와 쇠고기 생산에서 세계 1위이다(돼지고기는 2위). 2005년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1,300만톤으로 세계 닭고기 생산의 24%를 차지한다. 같은 해 미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250만톤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량인 33만톤보다 8배 정도 많다. 이것은 미국은 육계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국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미 FTA가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주로 쇠고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육계에서도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 육계산업도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냉동닭고기 관세가 20%이므로 관세가 철폐되면 17% 정도 수입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여기에 환율까지 더 인하되면 수입가격은 더욱 저렴해져 국내 육계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미 FTA로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 FAPRI에 의하면 2008년 냉동닭고기의 kg당 국제가격은 1.76달러가 될 전망이다. 2008년 대미 환율을 950원으로 가정할 경우 2008년 수입닭고기 kg당 도매원가는 2,031원으로 2005년에 비해 약 25% 저렴해질 전망이다. 2005년 수입닭고기 도매원가는 2,712원이었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부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닭고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산 닭고기와 수입산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전망이다.

03

〈표 1〉 한·미 FTA의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 영향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미국	-2,114	-1.5	-1,793	-1.3	-1,070	-0.8
곡물(밀제외)	-465	-18.6	-244	-9.8	-82	-3.3
채소·과일	-2,554	-2.9	-2,011	-2.3	-1,200	-1.4
유지작물	-882	-49.6	-498	-28.0	-144	-8.1
기타작물	-1,792	-8.4	-1,874	-8.8	-1,963	-9.2
축산물	-9,031	-14.5	-6,533	-10.5	-3,380	-5.4
낙농제품	-1,110	-3.6	-624	-2.0	-142	-0.5
가공식품	-3,837	-2.0	-3,582	-1.9	-2,883	-1.5
음료 및 담배	-1,045	-1.3	-844	-1.0	-687	-0.8
계	-22,830	-3.7	-18,003	-3.2	-11,552	-1.9

한·미 FTA가 계육산업에 미칠 또 다른 영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이 낮아지면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그 대신 국내산 닭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3. 육계업계 대응 방안

육계산업은 소득 향상에 따른 육계 소비증가로 DDA 농업협상에 등에 따라 시장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생산액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산업 중의 하나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2007년 육계생산액 규모는 6,746 억원에서 10년뒤인 2017년에는 9,500억원~1조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가격이나 생산비면에서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FTA 체결은 미국산 육계의 수입가격을 낮춰 국내 육계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 시대 육계산업의 대응 기본 방향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닭 등을 이용해 맛, 안전성, 보존성을 향상시킨 닭고기 생산, 유통이 요구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국산 육계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는 향후 육계산업의 앞날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